

SINCE 1986

선보가족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SUNBO FAMILY  **SUNBO Ind Co.,Ltd.** 부산광역시 대대동 1517-2 TEL:051-261-3454 Http://www.sunboind.co.kr 2008년 6월 15일 일요일 | 제53호 |

선보 복지시설 확충

본사가 직원들의 복지시설 확충에 더욱 힘쓰고 있다. 보다 쾌적한 직원들의 교육 공간을 확대하여 재정비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 리모델링이 그 예다.

설립된 지 약 10여년 된 외국인 기숙사. 노후화 된 외국인 기숙사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 증진을 위해 약 한 달여에 걸쳐 리모델링을 마쳤다. 못장과 침대가 각각 1개씩 비치되었으며 화장실이 실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인도네시아 노동

자 무스탁은 "이전보다 기숙사의 환경이 쾌적해졌다.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다양한 회사에서 많은 친구들이 일하고 있어서 각자 일하는 회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시설은 선보가 으뜸이며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복지와 더불어 본사 옥상에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한 교육공간이 있다. 복도의 이동인원이 많아 다양한 교육 과정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곳을 떠나 보다 밝고 조용하고 안정

된 분위기에서 더 높은 교육성과는 물론 업무 능력 향상의 취지에서 재정비되었다.

이곳에는 천장 매립형 에어컨은 물론 무선 마이크 시스템과 프로젝터, Wall screen 등 음향장비와 영상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옥상에 휴게실 및 벤치를 마련하여 점심시간 혹은 휴식시간에 심신의 피로를 풀수 있도록 했다.



대표이사, 칭찬 릴레이 주인공들과 회식

우리회사는 매달 사보를 통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들을 사원의 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에 당사 최금식 대표는 이번 칭찬 릴레이 해당 사원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잘 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남들이 보지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있어 선보의 지금이 있었고 앞으로 선보의 미래가 보인다고 말했다.



자전거 확충 '일석삼조의 효과'

본사 직원들이 다대공장 세 곳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가 확충됐다. 차로 이동하거나 걸어서 이동하기에 애매한 거리였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던 직원들의 고충이 일부 해결된 셈이다.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한 사원은 "차를 타고가기에는 가깝고 그렇다고 걸어가기에는 조금 먼 애매한 거리에 있어서 불편함이 조금 있었다. 5대라는 자전거를 확충시킨 뒤에는 각 공장들을

이동할 때 이동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이 제일 좋았고 간단한 서류나 사소한 부품을 자전거에 실을 수도 있어서 편리했다.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를 이용하니 연료 절약도 되고 이동하는 데 간편하고, 게다가 운동까지 되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전거 열쇠는 선보가족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다.



현대미포조선
MONTHLY MAGAZINE
HYUNDAI MIPCO LOCKYARD

기자재 모듈화 선도, 모회사 생산성 향상 기여
선보모형(인구)

현대미포조선은 2008년 6월호 베스트 파트너 란에 소개되었다. 월간지에는 우리회사의 놀라운 성장상을 소개 하면서 미포를 비롯한 국내 주요 조선소와 품질과 기술력으로 쌓은 든든한 밑바탕이 있어 가능했다고 했다. 또한,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일궈 왔으며 향후에도 혁신 프로세스와 혁신 문화로 성장 이 멈추지 않는 기업으로 소개 했다.

"현대미포조선 월간지 우리회사 소개"

현대미포조선에서 월간으로 발간되는 월간지 6월호 베스트 파트너 란에 우리회사가 소개 되었다. 월간지에는 우리회사의 놀라운 성장상을 소개 하면서 미포를 비롯한 국내 주요 조선소와 품질과 기술력으로 쌓은 든든한 밑바탕이 있어 가능했다고 했다. 또한,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일궈 왔으며 향후에도 혁신 프로세스와 혁신 문화로 성장 이 멈추지 않는 기업으로 소개 했다.

경영혁신 | SB2012



5월부터 <선보혁신 NEWS> 발간



우리회사 경영혁신사무국은 전사 경영혁신 우수사례 및 활동 내용 공유로 혁신 마인드 재무장과 실천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5월부터 선보 혁신NEWS를 발간하여 앵글, 파이프 등 자재 재활용 적치대 제작, 잔재받이 경사통 설치로 컷팅기 청소 및 주변 환경 개선 등 현장혁신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총 11개 우수사례를 공유 전파하였다.

이 중 창의적 노력과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로 선보유니텍 구평공장 에서 개선한 TANK TOP UNIT 작업 능률 향상 활동을 선정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지금껏 TANK TOP UNIT 상부에 설치되는 그레이팅과 핸드레일은 먼저 그레이팅을 하나씩 크레인을 사용하여 들어올린 후 설치하고, 이어서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2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많은 작업시간과 인력을 소모하였다.

뿐만아니라 핸드레일 설치시 그레이팅 가장자리를 밟고 작업함으로써 그레이팅 사이로 추락할 위험도 많았다.

그래서 선보유니텍 구평공장에서는 그레이팅과 핸드레일, 족장을 정

반에서 1개의 SET로 조립 후 TANK TOP UNIT에 설치함으로써 작업능률 향상과 작업시간 단축,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한번에 개선하였다.

또한 회사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5월 현장혁신 우수상으로 선정하여 시상 및 포상하였다.

※ TANK TOP UNIT이란?

Engine room floor 전체를 하나의 module unit화하여 설계, 제작된 제품.

+ 안전교육

'수박 겉핥기'식 교육은 NO!

매주 수요일 아침체조 후 시작되는 안전 교육. 이번에는 많은 과정 중에서 안전피 착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안전피는 지상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할 시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안전모, 안전화 등과 같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사원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전피 착용방법에 대해 불분명하게 알고 있음은 물론 안전피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안전피착용 방법과 목적, 중요성 등을 확립하기 위해 이러한 주제로 안전 교육이 시작됐다.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안전피 착용

교육은 이론만 배우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사원들 스스로가 직접 안전피 착용을 몸소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것과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여러 차

이 반복 교육을 통해 이러한 점들을 잘 숙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홍렬상무의 **이한권의책**

봉제공장시다 삼성입성기

저자는 "삶에 지친 사람들은 새벽시장에 가보라" (77쪽)고 권한다. "우울할 틈도 없이 바쁜 그곳"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단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다. "삶에 지친 사람은 이 책을 펴보라. 우울할 틈도, 절망할 틈도, 남 탓할 틈도 없이 치열했던 그 인생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책은 이를테면 '불행하시다고요? 저

랑 한번 물어보실래요?' 라고 외치고 있다.

저자 권세중(29)씨의 삶은 올해 1월 3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톰기사로 소개됐다. '세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초등학교 졸업 후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무작정 상경, 봉제공장 시대로 출발해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삼성 SDS의 웹마스터가 된 인

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묘사된 그의 삶은, 오싹할 만큼 극적이다.

픽션이었다면 "너무 비현실적 설정"이라고 비판받을 만큼 촘촘하게 중첩된 불행과 고난의 조건들을, 저자는 딛고 넘어 건넌다. '실화(實話)'의 감동이 묵직하다.

'새벽 신문배달, 하루 종일 봉제공장 격무, 밤에는 야학, 양말은 버려진 천 쪼가리를 기워 만든 덧바신' 같은 고생담은 생생하고, '공장 월급 23만원을 몽땅 시골의 할머니와 누나에게 송금하던 세월의 어느 날, 스스로를 용어매는 가족이 부담스러워지더라'는 토로는 솔직하다. 이해하기 힘든 영어 명령어를 통째로 외우면서 컴퓨터 자격증 9개를 따다든가, 취미로 시작한 인라인 스케이트로 '신문사

주최 대회 1등'까지 차지하는 식의 열정이 책의 곳곳에 묻어있다.

봉제공장 보조원에서 컴퓨터 회사 사원으로 자리를 옮긴 저자는, '종이 피아노'를 두드리는 불우한 피아니스트 지망생 처럼, 회사 구석에 버려진 고장난 자판을 들고 타자 연습을 시작해 결국 '컴퓨터 귀신'이 된다. 이런 부분만 떼어내 읽어 도, 귀감으로 삼을 만한 성공스토리다.

야학을 열어 가난한 젊은이에게 지식과 정을 나눠주는 봉사자들이나, 월급 절반을 털어 학원에 다니는 사환에게 술쩍 학원비를 대주는 '착한 사장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는 점도 이 책의 미덕이다.



여행지 | 광안리

부산 깊은 곳에 위치한
절경으로 설렘을 선물하는 그곳 **‘광안리’**

서울이나 타지방 사람들에게 부산 소개를 부탁받았을 때 난감했던 기억이 있는가. 혹시 다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광안리’를 품고 시작한다면 말이다. 광안리 일대는 사실 이제 해운대등지 만큼

이나 유명한 부산의 명소 중 하나로 꼽힌다. 너무 알려져 있다는 것이 많은 여행객들이나 부산시민들에게는 다소 식상한 장소일 수 있으나, 그것은 광안리의 깊이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부산의 소개에 빠지지 않는 배경이 있

으니 그것은 바로 ‘광안대교’다. 광안대교는 실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다. 야경이 좋기로 유명하나 일몰 또한 그에 못지않게 명관을 자랑한다. 주변에 즐비한 호텔에서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저녁 혹은 술자리를 한다면 맛 뿐만 아니라 운치 또한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KBS 본관 옆 황령산 봉수대로 향하는 길은 야경의 ‘절정’을 보여준다.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아진 서면의 야경과 보석같이 반짝이는 수영구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낱씨카 말을 때에는 낙동강까지 보이기 때문에 부산을 소개하기에 이만한 장소는 없을 듯하다. 아이들에게 지리적 감각과 공간 개념을 향상시키는데 또한 적합한 장소다.

또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놀이시

설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광안리해수욕장 바로 옆에 위치한 비치월드와 미월드는 대형 놀이동산을 축소화 해 놓은 듯 아기자기 하지만 그 재미와 스릴 만큼은 대형 놀이동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일반 놀이동산과는 달리 눈 앞에 시원한 바다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특히 바이킹을 타면 마치 바다로 뛰어드는 듯한 기분이 지 느낄 수 있다.

유명한 명소로 꼽히는 만큼 축제 또한 불만하다. 봄이면 열리는 바다행사인 ‘어방축제’와 가을에 열리는 ‘불꽃축제’는 가히 그 명성을 가꿀 만하다. 연인 혹은 가족들과 같이 떠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는 것 같다.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여름만으로도 시원하고 기분 좋은 그곳, 광안리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인터뷰 | 구평공장 이사 진급

자기개발,
강하고 똑똑한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

구평공장 이사 강보영



이번에 이사로 진급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우선은 직원일 때에는 다르게 더 넓은 부분에 걸친 일들을 해야 하니 부담감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져요. 이전의 직책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업무에 관해서 본다면 생산관리 쪽에만 전념했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직책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포부 혹은 각오가 있다면?

지금의 선보가 성장 진행형 상태에 있어요. 경영혁신을 통해서 미비했던 부분이 선명해지고 사소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개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조직의 흐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개인의 활동이 곧 기업 전체의 한 부분을 구축되는데 그것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 절차와 과정을 중점적으로 더욱 더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직원들 개인의 자기 개발을 최

대화할 수 있게 회사 자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직원들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사소할지도 모르는 적절한 투자가 직원들의 역량을 Level-up해서 후에는 선보를 움직이는 경쟁력 있는, 강하고 거대한 힘이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의 타협이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회사의 업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과 개인 사이를 넘어서 주위의 분위기가 일의 능률을 크게 좌우하고 있어 회사의 분위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능률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회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이 꼭 이루어야 할 목표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원자재 상승과 더불어 고유가 시대에 회사와 개인 모두가 힘든 이때에 시련과 고통을 당당하고 끈뚱하게 이겨낸다면 그만큼 보람도 더 클 것이다. 그 과정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지금, 많은 ‘선보인’들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독자투고 | 설계부 최순찬 부인 수필

**나라사랑에게
피아노 - I**



무슨 뜻일까? "나는 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내가 중학교 때 3년간 지겹도록 전교생 앞에서 불렀던 외국 노래 제목이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대학생이었던 큰언니가 방학 때 부산으로 내려와서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노래가 재밌어서 같이 외우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내가 노랫 곡 잘 불러서라기보다 모범생이 욕 비스무리한 노랫가사(에 모라모라 씨비)를 부르면 재밌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대박이 나서 지겹도록 불렀다.

근데 누구말 맞다나 부르는 노래가 사파라 인생이 된다고 하드만... 저 말은 내가 우리 신랑에게 우리 신랑이 내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한다.

벌써 2007년의 마지막 달이다. 울 초 둘째 출산 후 난 또 다시 공황장애를 겪었다.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증상 10가지가 다 맞다. 불안이 극대화 되면서 또 다시 생긴

것 같다. 이 글머리를 처음 쓴 지도 벌써 7개월이 다 되어간다. 다행히 공황장애 증상이 들쭉서 현이가 6개월을 넘기고는 거의 괜찮아졌다. 둘째 낳고 나서 아픈 나 때문에 남편이 고생 많았다. 일이 많이 밀려서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듯한데 나 역시 불안해지고 숨쉬기가 곤란해지면 무섭고 괴로워서 순찬씨를 일찍 오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큰소리로 빨리 외달라고 할 때도 많지만, 솔직히 우리 신랑만큼 든든한 사람이 없다. 오면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된다. 하지만 둘째가 6개월 되기전까지는 신랑이 회사에서 제대로 무언가를 못할까봐 항상 걱정이 되고 미안했다. 특히 나 때문에 일찍오고 나 잠든 이후 몰래 새벽 3~4시까지 일하는 걸 봤을 때는 화는 났지만 내심 많이 미안했다.

〈다음호에 계속〉



27호 칭찬 릴레이

대한ENG 김충복 (추천인: 양정수)

경쟁 혹은 화합

용접뿐만 아니라 바란 등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기가 좋아요. 한 마디로 '멀티 플레이어'죠.



칭찬 릴레이 27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우선 칭찬 릴레이에 소개되고 나서 주변에서 축하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과연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너무 과분한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받은 만큼 또 노력해서 지금 하는 일이나 혹은 그 외의 일까지도 능력이 닿는 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 어떤 마음 기점으로
근무하세요?

우선은 제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지고 남기 일을 정확히 맞추려고 늘 노력해요. 늦게까지 근무하더라도 제 할 일을 못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일이 용접 부분인데 그 부분 일을 마치고 나면 팀의 전반적인 부분에 보탬이 되려고 많이 노력해요. 사실 다들 일이 바쁠 때가 많다고 보니 제가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어찌면 행복한 일이나니까요.
그런데도 한 편으로는 아쉬워요. 해야 하

는 일 외에도 서로가 조금씩만 움직여서 동료를 도와주면 더 일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낄 텐데 내가 하는 일만 끝내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힘보다도 팀원들이 같이 화합해서 경쟁력 있는, 화합하는 팀이 되길 바라요.

28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분들은 많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어찌면 공식석상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정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도장부의 안계연 씨예요. 옆에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책임감이 강해요. 특히 납기일이 압박했을 때는 밤낮없이 고생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 같은 것을 느꼈어요. 오랜 기간 일하면서 쌓인 내공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안계연씨를 다음 주인공으로 칭찬합니다.

특히합니다

본사 공장	설계부
생일	박규태(6/15) 장호신(6/21)
고객지원팀	입사기념일
김동섭(6/1) 전철민(6/2) 심상섭(6/19)	고객지원팀
	김동섭(6/1)
관리부	관리부
한태영(6/15) 이동하(6/23)	안정민(6/3)
생산관리	구매부
김태호(6/10)	에연희(6/10)
생산부	생산부
엄익상(6/3) 최병화(6/7) 이상하(6/9) 허현(6/16)	조봉실(6/1) 김종민(6/2) 장수복(6/28)



칭찬 릴레이 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쳐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5개)



선보가족은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가족들의 편지나 자녀의 일기, 여행 이야기 등...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먹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051-260-5535 011-7435-3454 윤강재 과장

생생 현장의 소리

사소한 정리정돈 습관,
일의 능률 up!

- 대경산업 정맹호 직장



주로 하는 업무는?
평소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저는 대경산업 내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직원들 관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직원들을 이끌면서 최대한 일의 능률을 끌어올리려면 팀원들의 화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팀원들 서로를 항상 생각하고 돕는 것은 물론 일을 즐기라고 말해요. 물론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일이 힘들더라도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몸에 정붙이면 후에는 그만큼의 보람도 느낄 수가 있어요.

평소에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 혹은 기억에 남는 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2002년 5월에 입사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찌면 길다면 긴 시간 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힘들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재조달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물량 때문에 매 순간 힘들긴 하지만요. 자재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를 생각해본다면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억에 남는 일이 꼭 한가지라기보다는 힘들게 만든 완성품을 납품할 때는 만들면서 힘들었던 과정은 자연스럽게 잊고 보람을 느

끼게 되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보니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렇게 느끼는 것 일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선보의 초창기 멤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전보다 정리정돈이라던가 업무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서 자재구별 시간들이 많이 단축되었으나 그만큼 물량도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함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업체구분 없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였으나 지금은 사람들도 많고 조금 삭막해진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인원이 늘었다고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사소한 부분에서도 끈끈함을 조금씩 만들어갔으면 해요.

앞으로 선보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혹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즘 경영혁신 활동들이 현장에서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남은 잔재를 갖다 놓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함부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면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힘들어져요. 시간을 단축하고 일의 능률을 올리는 게 모든 이들의 목표인데 작은 것부터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도 내가 쓴다는 마음으로 정리정돈 잘해서 구분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는 동시에 같이 일하는 모두가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어요.